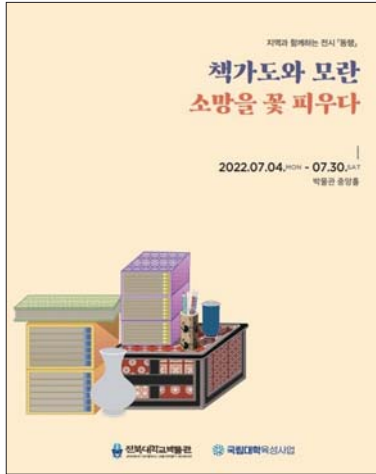


'책가도와 모란 : 소망을 꽃 피우다'

전북대 박물관, 30일까지 민화아카데미 수강생 작품 전시... 체험존·포토존 등도 마련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김은희)이 지역민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다. 박물관이 올해로 6년째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박물관 민화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로 꽃을 피우게 된 것.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전시 '책가도와 모란 : 소망을 꽃 피우다'가 4~30일까지 전북대박물관 중앙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고유의 그림인 민화 중에서도 책가도와 모란을 주제로 구성된다. 책가도는 서책을 기본으로 골동품, 문방사우와 같이 선비들이 일상에서 쓰는 기물들로 꾸며진 그림이다. 책가도에 주로 등장하는 서책과 문방사우는 배움과 선비정신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과일, 깃털, 산호, 꽃과 같은 여러 물건에는 다산·장수·출세·건강·부귀 등 복을 비는 사람들의 순수한 소망이 담겨 있다. 또한 모란은 꽃 중의 왕으로 일컬어지며 부귀영화를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모란은 길상

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기 위한 혼례, 가례, 각종 연향에서 장식 무늬로 사용 되었다. 한편 전시와 함께 2022년 현재의 책가도를 그려보는 체험존이 마련됐다. 책가도·모란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유안순 민화전문가가 함께하는 모란 그리기 체험 행사도 12일과 19일 무료로 진행된다. 박물관은 체험에 참여할 수강생 1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접수는 8일까지 전북대 박물관(063-270-3658)으로 하면 된다. 김은희 관장은 "전북대박물관은 우수한 전시 시설 공유와 지역 문화예술 활동 독려를 위해 지역민들의 예술적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대학 박물관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유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책가도와 모란 : 소망을 꽃 피우다' 포스터

“동심협력 정신으로 함께 하자”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17주년 기념식 개최... 오승환 이사장, 도약 담당

태권도원의 관리운영과 태권도 진흥을 이끌며 태권도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 이하 재단)이 지난 1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태권도원의 관리운영과 태권도 진흥을 이끌며 태권도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이 지난 1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오승환 이사장, 이종갑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과 자회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4명의 10년 장기근속 직원을 비롯 우수직원에게 대한 표창이 함께 진행되어 축하를 받았다. 오승환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태권도원 운영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양호' 달성 등 지난 1년 간 성과에 대해 재단 및 자회사 직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도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방만 경영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예견된 바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도 지난 1년간 조직과 인사 개혁을 단행해 안정화를 이룬 선제적 조치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동심협력(同心協力)의 정신으로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창립 기념식에는 국제사업부 김경석 대리, 콘텐츠운영부 이해영 주임이 우수직원으로, 기획예산부 김현우 과장 등 4명이 10년 장기근속 직원으로서 표창을 받았다. 또한 대한스포츠타의학회 이현준 부회장과 KBS아트비전 정연석 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무주 태권도원 2022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유공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무주=전문 기자

김제시립 금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차 문화 탐방

김제시립 금구도서관은 소설 '하리랑'을 통하여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중이다.

지난 6월에 진행된 1차 문화탐방-김제편에 이어 수강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정현(아리랑역사문화) 대표와 함께 군산 일원을 걸어 보며, 마치 소설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게 해준 2차 문화탐방 역시 호응이 뜨거웠다.

답사코스는 김제평야에서 생산한 쌀을 나르던 청하면 새창이 다리를 거쳐 제보 선창, 군산 내항 일대, 신흥동 말밭이 마을, 풍곡사를 둘러보고 김제 용지 출신의 박연세를 중심으로 한강 이남 최초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구암동산을 탐방한 후 새만금동서도로를 통해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광활면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하는 청년 '문화공유원탁'이 지난달 30일 저녁 7시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에서 열렸다.

예비문화도시사업 청년 '문화공유원탁'

군산시·군산문화도시센터, 청년문화 발표·패널토의 등 진행

군산시(시장 김임준)와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진, 군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청년 '문화공유원탁'이 지난달 30일 저녁 7시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에서 열렸다. 함정훈 대표(청기와)와 김나은 대표(우만컴퍼니)가 청년대표로 나선 문화공유원탁에서는 선유도를 배경으로 군산의 청년문화에 대해 박진명 센터장(부산 수영구 문화도시센터)의 발표와 함께 패널토의가 이어졌고, 군산 청년들의 자유로운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되었다. 박진명 센터장은 '청년의 역할, 관계, 공간이 있는 문화도시'라는 발표를 통해 일 자리를 포함한 청년의 사회적 역할, 건강한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이러한 역할과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문화도시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이 지역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자신의 역할과 활동,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창의력과 활력이 넘치

게 되는 문화도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패널토의에서는 '지역청년 문화의 다양성', '청년 공동체의 활동과 청년 공동체가 일하는 문화도시', '공단 청년의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가진 청년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이 큰 농어촌 지역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 등의 이야기가 주목받았고,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이들의 문화참여 기회와 문화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 청년 '문화공유원탁'은 하반기에 2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https://www.kunsan.ac.kr/gunsanoc>) 및 SN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인문강좌 운영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이하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는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인문강좌인 '소담소담(小談笑談)'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소담소담'은 원하는 강의 일자와 주제를 직접 선택해 맞춤형 교육을 수강하는 '수요응답형 인문 강좌'로, 도내 기관, 단체, 모임 등 10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방식은 대면(수강 인원 15명 이하)과 비대면

(수강 인원 20명 이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 인원은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대면 신청시 강의 장소는 신청기관에서 협의해야 하며, 주제와 맞는 체험행사도 진행할 수 있다. 변주승 교수는 "지역 인문학센터로서 전라북도 인문학 대중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응답형 인문 강좌'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